

韓·美 科學 및 技術 協力 協정

11월 22일 발효 향후 5년간 유효

한국과 미국 정부간에 과학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이 체결 되었다. 지난 11월 22일 서울에서 朴東鎭의무부장관과 스나이더 주한미국대사가 서명한 이 협정문서는 전문 11개 조항으로 되어 있으며 양국간에 과학 및 기술의 정보교환으로 평화적 상호이익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우호와 유대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. —다음은 협정서 전문이다. —

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과학 및 기술협력이 과학과 기술의 상태를 향상시키고 또한 양국간의 우호의 유대를 강화함을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.

제 1 조

1. 양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.
2. 그러한 협력의 주요목적은 아이디어, 정보 기능 및 기술을 교환하고 또한 상호 이익이 되는 문제에 관하여 협력하기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함에 있다.

제 2 조

이 협정에서 의도하는 협력에는 과학 및 기술 정보의 교환, 과학자 및 기술전문가의 교류 합동 세미나 및 회합의 개최 기초 및 응용과학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사업의 수행과 상호 합의하게 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이 포함된다.

제 3 조

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, 양 당사국은 적당할 경우에 정부기관, 대학교, 연구소 및 양국의 기타 기관과 상사간의 직접 접촉 및 협력의 발전과 또한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수행을 위한 그들간의 시행 약정의 체결을 장려하며 촉진한다.

제 4 조

제 3조의 과학자 기술전문가, 정부기관 및 연

구기관 또는 국제기구는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자신의 비용으로 적절한 경우에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과 계획에 참가하도록 양 당사국에 의하여 초청될 수 있다.

제 5 조

시행 약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 참가기관, 기구 또는 기업은 그 참가 비용 및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경비를 부담한다.

제 6 조

협력활동은 양국의 적용법규에 따라 행하여지며 또한 자금의 가용성에 따른다.

제 7 조

양 당사국에 대표는 이 협정의 시행을 토의하고 촉진하며 또한 공동이익이 되는 계획 사업 및 활동의 진척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, 회합한다. 특수문제를 토의하기 위하여 전문가단을 임명할 수 있다.

제 8 조

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사업 및 계획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에 사용되고 있는 타방당사국의 인원 및 장비의 그 출입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.

제 9 조

1.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협력활동으로부터 연유하는 비독점적 성질의 과학 및 기술정

보는 특수한 사정하에서 달리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가 기관의 관계적인 경로를 통하여 또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세계의 과학계에 제공된다.

2.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부터 연유하는 특허권, 의장 및 기타 공업소유권의 처리에 관해서는 제 3조에 언급된 실시약정에 규정된다.

제 10 조

이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양 당사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을 위한 다른 약정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제 11 조

1. 이 협정은 서명시에 발효하여 5년간 유효하다. 이 협정은 당사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또는 연장될 수 있다.
2.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른 약정의 효력 또는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.

<토막소식>

물방울 관개시설

농작물에 물을 주면 작물재배에 도움을 별로 주지 못한채 잡초만 무성하게 키워주고 말았던 경험은 대부분의 농민들은 다 겪어온 사실이다. 농장에 물을 뿌린후 이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 재초기를 사용하거나 화학약품을 뿌려야 하는 추가적인 고통이 뒤따른다.

사실상 스프링클러를 사용한 관개방식은 물이 말라버린 작물뿌리까지 미쳐 가기도 전에 물방울이 공중이나 地面에서 쉽게 증발해 버린 반면에 이 고귀한 물이 극히 일부분만의 농작물에 흡수되는 단점을 초래했다.

이스라엘 과학자들은 수년전부터 이러한 물낭비의 문제점을 지양한 새로운 관개방법을 개발했다. 즉 공중에 물을 살포하여 일부가 증발하고 나머지는 지상에 낙하하여 잡초를 키워주는 식의 역효과보다는 직접 뿌리계통에 물을 주는 진기한 관개방법이 효과가 좋아 이 물방울 관개계통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.

기본적으로 이 방식은 매우 간단하다. 유연성있는 호스를 과수원 지면에 전반적으로 깔고 나무근처에는 보다 가느다란 호스를 메인 호스로 부터 한개 끌어내어 끝부분이 개방되어 직접 나무뿌리에 달게 한다.

이 세분된 가는 호스의 길이가 나무뿌리에 주는 물의 양을 좌우한다. 즉 길면 길수록 물방울은 적게 떨어지게 마련이다.

이와같은 관개시설을 계속 사용하면 매우 유익하다. 다른 관개방식은 일정한 간격으로 많은 농업용수를 허비하며, 작물에 계속적인 충격을 가해서 좋지않다. 그러나 이 물방울 관개양식으로 항상 뿌리를 축축히 적셔주어 성장이 빠르고 보다많은 수확고를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.

이 방식을 적용하면 농업용수를 경제적으로 사용하고 잡초를 억제시키는 장점 이외에도 비료가 적게든다. 비료를 별도로 뿌려 낭비할 필요없이 직접 물에 용해시켜 이 배수관을 통해 직접 뿌리에만 공급하여 경제적이기도 하다.

「이스라쿠아」 전시회(ISRAQUA, EXHIBITION)에 출품된 비료용해탱크는 고도의 정확성과 우수한 성능으로 상기 문제점을 해결했다.